

北엔 '평화·상생' 日엔 '과거직시' 주문

■ 박대통령, 8·15광복절 경축사 뭉뚱그림

日 정치인 과거 상처 치유 용기있는 리더십 보여줘야

하반기 국정 키워드로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평화와 상생'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직시'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전날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극적 타결된데 맞춰 이산가족상봉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제언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또 대일 메시지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자국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의 과거 직시, 용기 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동=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이전보다 유연해졌다. 전날 남북 개성공단 정상회담 합의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산가족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언하며 구체적인 평화·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새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등 북한이 변화하면 언제든 응징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한일관계-과거사 직시, 피해자 배려 촉구=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던진 대일(對日) 메시지는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요구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양국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회 임직원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 그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단호한 경고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던 애초 예상보다는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평가다. 독도나 위안부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없었다.

◇하반기 국정 운영=?=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법치 확립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개성공단 재가동 얼마나 걸릴까

설비 점검 등 1~2개월 소요

정부, 입주기업 반복 수용 방침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4개월 이상 가동을 멈춘 공단이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합의서 5항에는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애초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 회담에 돌입할 때는 완전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공단을 다시 가동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7차 회담에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재가동을 병행할 수 있다면서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즉시 재가동을 원하는 북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남북은 이르면 다음 주초부터 합의 사항을 이행할 기구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동위가 구성된 이후 회의 결과에 따라 재가동 시점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일부 당국자는 15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고 기업들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재가동 준비에 착수하더라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주기업들은 녀 달이 남도록 기계를 돌리지 않아 점검이 필요한 점과 장마철 습기로 말미암은 손상 등을 들어 지금 당장 준비에 착수한다고 해도 재가동까지 1~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공동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합의 사항 이행이 지연되면서 재가동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동위 구성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사전 설비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의 반복 요청을 수용할 방침이다.

북측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입주기업의 반복과 사전 설비 점검은 다음 주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동위가 구성된 이후 회의 결과에 따라 재가동 시점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일부 당국자는 15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연합뉴스

DMZ 평화공원

실현 가능성 관심

"남북 신뢰 우선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제언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또 대일 메시지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자국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의 과거 직시, 용기 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동=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이전보다 유연해졌다. 전날 남북 개성공단 정상회담 합의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산가족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언하며 구체적인 평화·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새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등 북한이 변화하면 언제든 응징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한일관계-과거사 직시, 피해자 배려 촉구=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던진 대일(對日) 메시지는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요구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양국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한재권 회장을 비롯한 비대위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남북 개성공단정상화 합의를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8·15와 남다른 인연

모친 故육영수 여사 39년전 문세광 흉탄에 서거

대한민국 최대 경축일인 8·15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는 통탄의 애도일로 기억된다. 39년전인 1974년 이날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故)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손 흉탄에 맞아 비명에 간 날이어서다.

교수가 되기위한 청운의 꿈을 안고 프랑스에서 유학중이던 박 대통령은 이날 '급히 귀국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곧장 한국으로 돌아왔다. 모친의 장례식을 치른 박 대통령은 그날부터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약관 22세의 일이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박 대

통령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며 애도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일기에 '남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고 적었다. 박 대통령은 '영부인배 정탈 어머니 배구대회'에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시작으로 5년간 영부인으로 활동하며 선친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여객 너머로 정치력을

배우게 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참모진 첫 개편에서 3선의원을 지낸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중용한 것도 박 대통령과 8·15의 남다른 인연을 떠올리게 했다. 박 대통령의 원로참모진인 7인회의 중심인물인 김 실장은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1974년 육 여사를 피격된 문세광의 자백

을 받아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매년 광복절에 '재단법인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서울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묘소에서 거행되는 추도식에 참석해왔다. 박 대통령은 그 시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전후한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비무장지대에서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자신의 모친 피격을 사주한 북한을 향해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공동위는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및 남북 인연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위는 신변안전을 포함해 개성공단의 여러 문제를 당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하는 기구"라면서 "현재의 남북 실무회담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공동위의 양측 위원장은 지난 7차 실무회담처럼 국장급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남북 중책 맡게 될 '개성공단 공동위'

가동중단 재발방지·신변안전 등 현안 해결 상설 협의 기구

남북은 14일 채택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의 주요 이행사항을 당국간 상설 협의 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위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식 등이 주목된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 및 남북 인연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위는 신변안전을 포함해 개성공단의 여러 문제를 당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하는 기구"라면서 "현재의 남북 실무회담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공동위의 양측 위원장은 지난 7차 실무회담처럼 국장급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위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공단인 쑤저우(蘇州) 공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우리측에 먼저 제안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정부간 협의체인 연합협조위원회 등을 통해 공단 운영 문제를 결정하고 하부기관인 관리위원회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쑤저우 공단을 공동 운영한다.

개성공단에는 민간 주체로 각종 실무 사안을 처리하는 관리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므로, 그 상위 기구로 당국간 협의기구인 공동위가 새롭게 설치된 것이다.

정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공동위의 신설이 지난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같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사전에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